

조계종은 3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중봉 성파 대종사가 전달 받은 불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佛日이 밝으니 뭇생명에 大悲가 내리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5대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불자들에게 사회 화합의 주체가 될 것을 강조하며, "세계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따스한 화합의 기운으로 품어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추대법회 현장의 모습을 지상 화보로 전한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추대법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은 참석대중이 삼귀의를 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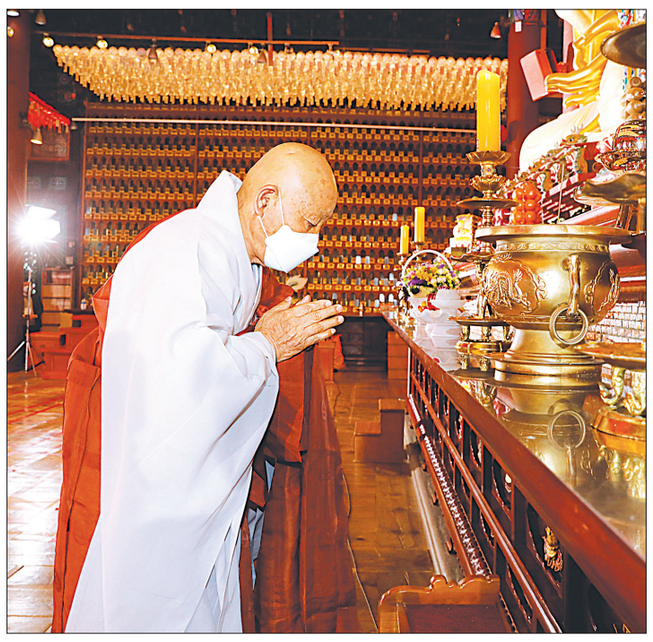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운집해 제15대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의 종정 추대를 축하했다.



법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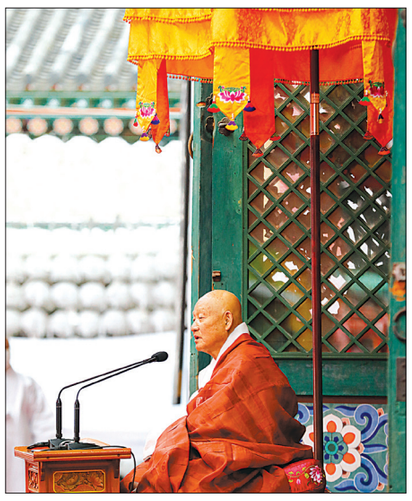
중봉 성파 대종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운집한 3000여 불자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법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가 불단에 헌향하고 삼배를 올리고 있다.



제15대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다.



추대법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